박원자의 母情佛心 23 동국대 정각원장 진명 스님의 어머니



▶ 한줄 요약
1990년대 후반부터 방송포교로 이름을 알린 진명 스님은 올해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스님은 수상 소감으로 "좋은 목소리를 갖게 해준 어머니께 감사한다"고 밝혔다. 출가 당시 눈물 보였던 어머니는 지금도 스님께 "차 조심, 사람 조심"을 당부한다.

"돌아오지 않으려면 사찰서 잘 살아라"



그림 · 박구원

올해 포교대상 공로상 수상하며
"좋은 목소리 준 어머니께 감사"
출가선언 당시 울기만한 어머니
겨우내 정한수 뜨고 '안녕' 기원
지금도 어머니는 "차 조심" 당부

1990년대 후반, 아침 9시면 불교방송에서 흘러나오는 포근하고 담백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한 비구니 스님의 목소리에 많은 시청자들이 매료당했다. 클래식 음악과 어우러졌던 진명 스님의 라디오 진행은 오랜 시간 이어졌다. 그동안 불자들은 신심이 깊어졌고, 이웃 종교인들은 불교를 바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종교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개종을 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다. 산속에만 있는 줄 알았던 스님이, 더구나 비구니 스님이 방송진행을 하는 것은 당시에 파격적이었다. 25여 년 동안 스님은 BBS불교방송과 BTN불교라디오 등 불교계 방송과 라디오 등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가까이 그리고 쉽게 여기는데 일조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얼마 전 제33회 조계종 포교대상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아마 부처님께서 이 시대에 오셨다면 충분히 방송을 포교수단으로 삼으셨을 거예요. 이보다 좋은 포교수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 그랬을 것이다. 스마트폰 전성시대 아닌가. 유튜브라는 플랫폼에는 마음만 먹으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이 다 담겨있다. 신통의 시대다. 아마 부처님께서 지금 세상에 오셨더라면 세계적인 뮤지션 '방탄소년단' 보다 더 인기였을 것이다. 전 세계인이 볼 수 있는 방송에 나오셔서 인류 최대의 화두인 '고통' 에서 해방돼 '행복' 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셨을 테니까. 그러고 보면 부처님 제자들인 수행자들에게 이 시대는 포교를 잘 할 수 있은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그 선두에 일찌감치 섰던 진명 스님은 수상식에서 "이런 좋은 목소리를 가지게 해주신 어머니께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남겼다. 스님에게 멋있고 독보적인 목소리를 물려준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을까.

스님은 1남7녀의 맏딸이다. 어머니는 딸 넷을 두고 난 다음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늘 하는 군담이 있었다. "아들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할머니의 남아선호 사상에 대한 신념과 기에 눌린 어머니는 그 후 자식 셋을 더 낳았는데 모두 딸이었다. 아들을 낳고 두 번째 딸을 낳았을 때는 미역국도 안 드셨을 만큼 상심이 컸다. 실성한 사람처럼 감나무 밑 담장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다가 아래로 떨어져 평생 고생했을 만큼 어깨를 크게 다치기도 했다. 그래도 키워야 할 자식이 곁에 있는 한 한없이 강한 존재가 세상의 어머니 아니던가. 어머니는 다시 일어서 다감한 마음으로 자식들을 정성껏 뒷바라지했다.

비록 시어머니에게 구박은 받았으나 마음만은 한량없이 컸던 어머니였다. 지리산 쌍계사 근처 시골마을의 지도자 역할을 하던 아버지 덕분에 명절이면 고기며 과일이 선물로 들어왔다. 어머니는 큰 가마솥에 물을 가득 붓고 고기를 전부 집어넣어 국을 끓인 다음 아이들을 불러 줄을 세웠다. 아이들은 광주리에 담긴 고깃국이며 떡, 과일과 과자를 머리에 이고 친척집과 생활이 여의치 않은 이웃집에 음식을 배달했다.

텔레비전이 없던 60년대 시절, 저녁이면 어머니는 큰딸을 조그마한 라디오 앞으로 불렀다. 큰딸은 턱을 괴고 누워 당시 유행하던 드라마 '섬마을 선생님' , '동백아가씨' 를 엄마와 함께 듣고 잠들었다. 목소리가 곱고 노래도 잘 불렀던 어머니를 따라 드라마 주제가를 불렀던 그 시절이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시간이었다. 동생들이 일곱이나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 품을 온전히 차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노래 실력은 시원치 않으셨지만 아버지도 가끔 팔베개를 해주시면서 한 소절씩 노래를 따라 부르게 했다. 처음 따라 불렀던 노래가 '대전블루스' 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 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열차 대전 발 영 시 오십 분' , 아직도 그 첫 소절의 여운이 또렷하다. 그런데 어쩐 일일까. 이 노래가 실제가 되어버렸다. 이 큰딸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고향 지리산을 떠나 부산에 가있더니 진학 대신 출가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우량아로 태어나 별명이 '풍년두부' 였을 만큼 건강했던 큰딸이 초등학교 때부터 아프기 시작했다. 장과 간이 안 좋아 고생하면서 중학교 때는 학교에 사흘도리로 갈 만큼 병원을 오갔다. 학교를 너무 많이 나가지 못해 때로 담임선생님께서 반장, 부반장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와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갈 정도였다. 몸이 아프다 보니 홀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 삶에 대해 깊이 사유하는 사춘기를 보냈다.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는 이 지리산 시골마을 이 부모님에게 태어났을까?'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갈까?'

가을날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마음이 쓸쓸했고 친구들보다 먼저 죽을 것만 같았다. 친구들이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풀 때 '죽음' 이 숙제가 되었다. 어머니는 아픈 딸을 위해 한약을 달여 주었다. 너무 오랫동안 약을 먹다보니 먹는 척하고 집 앞 도랑에 버리기도 했는데, 어느 약에 닿았는지 차츰 몸이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해, 부산으로 가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준비를 하게 되었다.

그때 서점에 자주 드나들며 불교서적을 접한 게 출가의 계기가 되었다. 하루 종일 서점에서 읽고 싶은 책들을 읽었다. 진학은 뒷전이고 불교에 푹 빠져들었다. '불자지송' 을 보면서 신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반야심경〉을 읽으면서는 '왜 부처님께서는 눈과 귀, 코가 없다' 고 하셨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어느 날, 한 스님을 만나고서 수행자도 마음을 치유하는 의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는 마음이 시원해졌다. 출가 준비가 시작됐다. 〈천수경〉을 다 외웠다. '신묘장구대다라니' 를 사흘 만에 다 외웠고, 〈천수경〉 구절들이 마음에 쏙쏙 들어왔으니, 전생에 익힌 인연이었을 것이다.

출가의 뜻을 비치자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참석한 가족회의가 열렸다. 먼저 할머니가 입을 여셨다. "내가 육십 평생을 살아보니 저 하고 싶은 것 하고 사는 놈이 장땡이더라. 보내줘라."

평생 효자였던 아버지가 이번에는 할머니 말을 듣지 않았다. "네 다리를 분질러놓고 내가 평생 먹여 살리는 한이 있더라도 중은 못 만든다."

결혼해서 출가(出嫁)를 해야 할 딸이 난데없이 절로 출가(出家)를 한다니 아버지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어머니는 말없이 울고만 있었다. 딸이 물러서지 않자 아버지는 타협점을 내놓았다. 일단 일주일만 살다가 오라고 했다. 생선을 좋아하고 일도 못하는 딸이 그 어려운 절집 생활을 견뎌낼 수 없을 거리는 속셈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딸은 몇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나중에 들었다. 어머니가 그해 겨울이 다가도록 매일 아침마다 밥하러 부엌에 들어가 얼마나 눈이 짓무르도록 울었는지. 그리고 정한수를 떠놓고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면 거기서 잘 살라' 고 빌었다는 이야기를.

그래도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했던 부모님이 기대를 완전히 버린 것은 스님이 행자시절을 마치고 강원에 들어가기 전 운문사 사리암에 있을 때였다. 대구에서 친구 아들 주례를 섰던 아버지가 이래저래 딸 생각으로 마음이 허허로워 택시를 대절해 찾아온 것이다. 그런데 너무 해맑고 즐거운 표정으로 인사하고는 밥상을 차려온 딸을 대하고는 그만 기가 막혀 말 한마디 안하고 그길로 돌아갔다. 나중에 인사드리러 간 큰손녀에게 할머니께서 들려주었다.

"자식이 무섭긴 무서웠나 보더라. 내 아들이 6.25전쟁 때 그 모진 고생을 해도 울지 않더니, 딸 있는 곳을 다녀와서는 사흘 밤낮을 안 일어나고 베갯잇을 적시며 울더구나."

강원에 들어간 딸 스님의 '수계 받고 부처님 제자가 되었으니 걱정하지 말라' 는 편지를 받은 아버지는 만리장성의 답장을 보내왔다. '너를 아들처럼 키우며 기대를 했는데 출가한다고 했을 때 네가 원망스러웠다. 그러나 부처님 제자로 출가했으니 열심히 수행해서 세상의 빛이 되는 스님이 되라' 는 내용이었다. 어머니도 편지를 자주 보내왔다. 앞산의 잔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스님이 추운데 얼마나 힘들까 생각한다며, 새벽마다 건강하게 잘 살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감성적인 어머니의 편지를 도반 스님들이 돌려 읽고는 저마다 두고 온 어머니 생각에 다 울었다고 한다. 진명 스님은 부모님에게 '큰스님' 이라 불린다. 다섯째 딸인 동생이 출가하는 바람에 자연히 그렇게 되었다. 지리산의 정기를 받고 자랐음인지 사촌 둘도 출가했다. 그러자 작은 아버지께서 '저 큰스님 때문에 애들이 졸졸 따라 출가했다' 고 푸념 아닌 푸념을 했다.

출가한 딸 스님들이 집에 들르면 '스님, 앉으세요' 하시곤 공경의 삼배를 올렸던 어머니는 그래도 여전히 수행자 이전에 자식은 자식인걸까. 진명 스님이 방송일로 유럽에 여러 날 있을 때 어머니 수원심 신말순 여사께서 하신 말씀이다.

"스님, 차 조심, 사람 조심 하세요. 누가 가자고 하면 따라가지 마세요."

언제 어느 자리에서나 당당하고 씩씩하며 때때로 유쾌한 농담으로 상대방을 무장 해제시키는 딸 스님이 이에 답했다.

"보살님, 제 얼굴이 무기예요. 저보고 따라갈 사람 없어요. 좀 예쁘게 낳아놓고 그런 말씀 하셔야죠."

그런데, 요즘 스님 모습을 보면 스님 어머니의 걱정이 이해가 간다. 스님의 빛나는 피부와 환히 웃는 얼굴이 화장품 광고를 하는 여느 중년배우보다 훨씬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세상의 어머니들은 다 관세음보살들이죠. 어머니들이 이 세상의 모든 자식을 길러내잖아요. 보살의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아낌없이 줄 수 없죠. 출가해서 살아보니까 고해 속에서 살면서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들의 삶 자체가 우리 수행자들보다 더 큰 수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고 세상의 어머니들이 모두 그렇게 사시죠. 어머니들은 한 가정만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들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건강하게 만들죠." 〈작가〉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